

전남개발공사, 조직개편 '슬림화'

1본부 3실 6처 개편·후속 인사 진행

전남개발공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복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한다.

15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개발공사정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전남도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곧바로 방영, 조직 개편과 함께 후속 인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현재 2본부 2실 10부 체제에서 1본부 3실 6처로 전환,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현업부서의 기능을 내실화한다.

기존 경영본부와 사업본부를 '본부'로 통합하고 하위 부서 명칭도 부에서 처로 변경한다.

본부 아래에는 경영지원처, 신사업개발처, 건축안전사업처, 분양보상처,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KIC 사업단을 둘 예정이다. 오통사업단과 죽림사업단을 둔 택지개발사업실이 신설된다.

전략기획실은 기획조정실로 기능이



전남도청 전경.

일부 조정되며, 감사실은 기존 조직이 그대로 유지된다.

부서장 직급도 2~3급에서 2급 이상으로 조정하고, 3급까지 실무자로 전진 배치해 현업부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직급별 정원은 임원 1명, 1급 2명, 2급 7명, 3급 13명, 4급 32명, 5급 41명, 6급 26명, 7~8급 14명 등 현재와 같이 총 136명으로 변동되지 않는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중복기능을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무안=양수영 기자 ysn6313@

금호타이어, 빛그린산단 이전 속도

(광주공장)

광주시-미래에셋대우와 업무협약 4100억 투자... 공장 이전 절차 논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광주형일자리 선도모델인 빛그린산단으로 옮겨간다. 이로 인해 광주송정역과 연계한 현 금호타이어 부지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6일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미래에셋대우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과 부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금호타이어, 광주시, 미래에셋대우는 현 공장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첨단·친환경 설비를 갖춘 공장 이전 절차 등을 논의한다.

광주시와 광주시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를 송정역 고속철도(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 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주 송정역 일대 지역경제거점형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해 9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광주송정역 인근 64만㎡의 땅에 모두 4100억원을 투자해 산업시설·연구용지·주거단지·상업용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식에 '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금호타이어 전대진 부사장과 조삼수 노조 대표회장, 봉원석 미래에셋대우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금호타이어는 모기업이던 광주여객이 양질의 타이어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직접 제대로 된 타이어를 만들어보자"며 1960년 삼양타이어란 이름으로 설립됐다. 광주 서구 양동에 세운 공장을 1974년

광산구 소촌동 현 광주공장으로 확장 이전했다.

1980년대 들어 연구소와 주차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면서 공장 규모가 약 39만 6694㎡(12만평) 규모로 확장됐다.

한편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광주송정역세권 연계 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광산구는 현실성 있는 다양한 개발방식이 포함된 역세권 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2월 토론회를 거쳐 3월께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토지가격 상승과 개발방법 등 다양한 여건을 놓고 사업타당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경기도, 가구산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

경기도-경기대진테크노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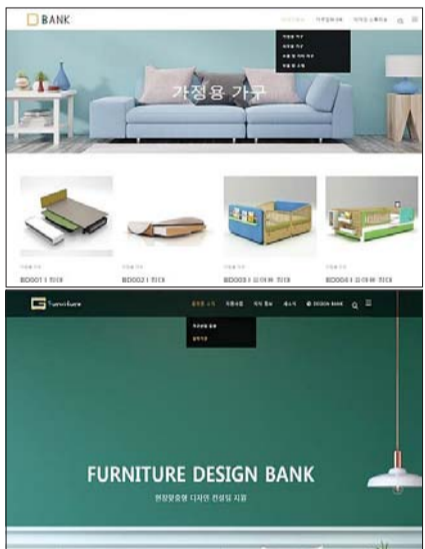
'가구산업 플랫폼' 홈페이지 운영

경기도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도내 가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 '경기도 가구산업 플랫폼'을 구축,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가구산업 플랫폼'은 가구 산업의 최신 트렌드, 디자인, 가구 지원 사업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가구 산업인들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개설된 온라인 기반 플랫폼이다.

먼저 '가구지원사업 소개' 페이지를 통해 디자인 개발, 시제품제작 지원, 시험 분석 지원, 홍보 마케팅 지원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가구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산업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각종 유관기관들의 현황과 위치 등을 안내함으로써 향후 지원사업 참여 시 활용 가능한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콘텐츠는 아직 사업화 되지 않은 가구 디자인을 바탕으로 도내 가구기업들에게 사업지원(기술이전)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온라인 가구 디자인뱅크'이다. 일종의 가구 디자이너-가구기업 간 기술거래의 장(場)인 셈이다.

아울러 국내외 전시·박람회 일정, 디자인 동향, 가구산업 트렌드, 가구분야 학



경기도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도내 가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가구디자인뱅크 PC 접속 화면(위)과 경기도 가구산업 플랫폼 실제 PC 접속화면.

술·세미나, 가구기업 채용, 입찰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을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Q&A, 자유게시판 등 가구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공유와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만들었다.

도 특화산업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토대로 최신 가구산업 정보 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디자인 분야 활발한 기술 거래를 도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방위적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광주시교육청, 급식전담직원 안전교육

영양사·조리사·조리원 1500명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 이해 도와

광주시교육청이 총 4일간 학교급식전담직원 150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교육연수원대강당에서 광주 학교급식 전담직원인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교육'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대규모 안전교육은 학교급식소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전부 적용받게 됨에 따라, 학교급식전담직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 등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 급식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요인별 안전사고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방안을 알기 쉽게 안내해 현장에서



광주시교육청, 급식전담직원 1500명 안전교육.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교육센터 김경순 소장 등 산재 관련 전문 강사 다수를 초빙했다.

첫날 교육에서 강사진은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5대 주요사항을 급식실에서 자주 발

생하는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했다.

시교육청 양정기 교육국장은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안전과 건강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며 "지속적 교육과 급식 시설 개선으로 안전관리를 체계화해 산재 없는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울산시, 2023년 국립 미래과학관 설립 추진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울산시가 오는 2023년 목표로 국립 체형형 미래과학관을 건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등 본격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15일 울산테크노파크와 연구용역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과학관 기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 조성계획에 부합하는 타당성 분석 및 수익 모델 제시, 기술성 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등이다.

울산시는 현재 2023년까지 2천억원 상당(국비 1천500억원, 시비 500억원)을 들여 미래과학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 문화시설이 크게 부족한 데 따라 추진되는 사업 중 하나다.

시는 미래과학관이 문화생활에서 소외된 제조업 중심 산업도시인 울산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최인락 기자 remark@

전남교육청 학교 안전점검 강화

전라남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안전팀 사무관을 비롯한 3명으로 현장 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11일 곡성고, 한울고를 시작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 교육환경 시설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안전점검은 건물과 오벽 등 시설물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속의 안전 위험요소는 물론 겨울철 화재 및 폭설에 따른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학교현장의 안전 확보 및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

기관별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매월 4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은 유·초·중학교의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이,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매월 2~3교를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전남=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6 | 해질 / 17:38

1월 16일 (수)
음력 : 12월 11일

수도권 날씨
-9 ~ -1°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5/-1, 동두천 -12/1, 가평 -13/0, 파주 -7/2, 서울 -9/-1, 양평 -11/-1, 인천 -8/-1, 수원 -9/-2, 용인 -9/-2, 평택 -12/-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